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

- 전통문화 및 관광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 전통문화 및 관광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Ⅰ 연 수 개 요

○ 목 적 :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과 역사적 유적이 많은 태국의 문화관광 관련 실태와 인프라 등을 벤치마킹하여, 전통문화자원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광산업 발전방안 모색

○ 기 간 : 2015. 12. 19(토) ~ 12. 24(목) / 4박 6일

○ 방 문 국 : 태국(수코타이, 아유타야, 방콕)

○ 인 원 : 9명(총무담당관실 4명, 운영수석전문위원실 3명, 의사담당관실 2명)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비고
총 무 담당관실	행정 5급	김 영 식	남	
	청원경찰	정 남 철	남	
	사무 7급	정 은 정	여	
	사무 7급	최 미 현	여	
운영수석 전문위원실	행정 7급	김 영 환	남	
	행정 7급	변 은 진	여	
	행정 8급	이 미 숙	여	
의 사 담당관실	행정 6급	서 인 숙	여	
	사무 8급	김 선 자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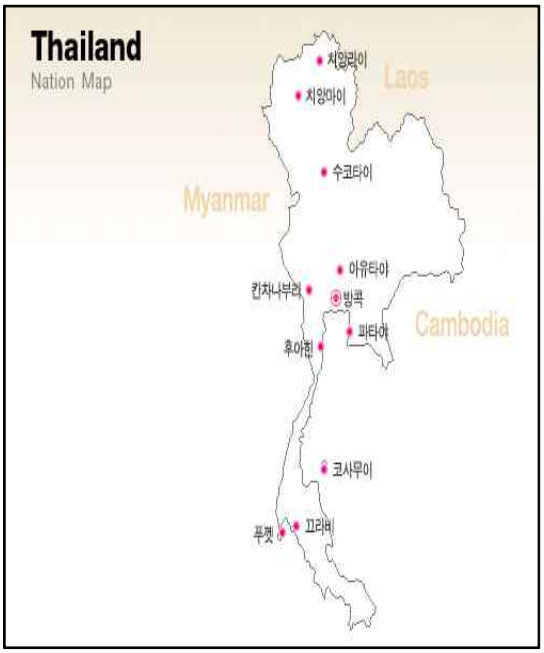
○ 주요 연수일정

일자	방 문 기 관	방문목적	면 담 자
12.20 (일)	· 씨 싸차날라이 역사 공원 · 수코타이 역사 공원	· 자연자원(역사) 관광 상품화 사례 파악	역사 공원 관계자 등
12.21 (월)	· 람캄행 국립 박물관 · 아유타야로 이동	· 문화유산 시설관리 및 관광객 선호도 파악	박물관 관계자 등
12.22 (화)	· 아유타야 유적지 답사 · 왕립 민속 예술 공예 센타 · 방콕으로 이동	· 자연자원(역사) 관광 상품화 사례 파악 · 향토자산의 문화관광 산업화 방안 벤치마킹	유적지 및 민속공예센터 관계자등
12.23 (수)	· 수상시장, 위험한 기차길 시장 · 카오산 로드, 위만멕 궁전 등	· 자연자원 관광상품화 사례 파악	마을 운영위 관계자 등

Ⅱ 방문국 일반현황

1 개 요

◈ 수 도 : 방콕(BANGKOK, 953만명)
◈ 인 구 : 약 6,499.7만명(2006년 기준)
◈ 기 후 : 고온다습의 아열대성(연평균 기온 27.6℃, 연평균 습도 79%)
◈ 면 적 : 51.4만㎢(한반도의 2.3배)
◈ 주요언어 : 타이어(공용어)
◈ 주요도시 : 치앙마이(Chiang Mai), 콘캔(Khon Kaen), 핫야이(Hat Yai)
◈ 주요민족 : 타이족(Thai, 81.5%), 화교(13.1%), 말레이족(2.9%), 기타(2.5%)
◈ 종 교 : 불교(소승, 95%), 회교(4%), 기독교(1%)



2 정 치·외 교

○ 태국의 정치는 입헌국주제에 입각한 민주주의임. 현재의 국왕은 차크리 왕조의 제9대에 해당하는 푸미폰 야둔야뎃(1946년 즉위) 국왕임.

○ 입헌군주제에 기초한 내각책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왕이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으나, 상징적 국가원수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음

○ 상·하 양원제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헌법에 따라 6년 임기의 상원 200명, 4년 임기의 하원 400명으로 구성.

○ 외교는 반공을 기본노선으로 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통치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적극적으로 친밀관계를 형성하여 많은 경제 원조를 받음. 그러나 공산국가들과도 돈독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동남아시아 지역 내의 정치적 영향력도 큼.

3 사회·문화

○ 불교의 나라답게 전국에 3만여 개소의 사찰이 산재하며 승려는 18만 명 이상에 이르며 가정, 사무실, 상점에서 불상을 볼 수 있음. 옛날에는 사찰이 타이의 유일한 교육기관이었으며 지금도 사원에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태국문화의 기조는 인도, 버마, 크메르문화가 융합된 것이며, 불교문화는 스리랑카로부터 도입됨. 타이족은 11세기경 중국 서남단에서 현재의 타이 땅으로 이민 왔다는 것이 일반정설이나, 말레이 반도에서 북상을 했다는 설과 선사시대 이후 주변 종족들이 계속 이주해 들어와 구성되었다는 설들이 대립하고 있음.

4 역 사

○ 수코타이 왕국(12세기초), 아유타야 왕국(1350년)을 거쳐 딱신왕이 버마를 몰아내고 타이왕국을 재건, 톤부리에 수도를 정했으며, 1782년에 짝끄리 왕조의 초대왕인 라마1세가 방콕으로 천도한 후, 현재 라마9세 푸미폰 아둔야데 국왕에 이르고 있음.

○ 한국과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인 14세기 싸얌왕조때 교역사절단을 파견 하였으며, 한국전쟁(6.25)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하였고, 1959년에 정식으로 양국간 외교관계가 성립.

5 행 정

○ 타이는 방콕과 나머지 76개의 주와 6개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수도 방콕은 주는 아니지만, 특별행정구역으로 76개의 주와 같은 지위의 행정 구역이기 때문에 77주에 포함되기도 함.

○ 주의 이름은 각각의 주도와 이름이 동일. 주도가 그 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닌 경우는 6개의 주가 있는데, 〈딱주〉, 〈빠툼타니 주〉, 〈쏭클라 주〉, 〈촌부리 주〉, 〈나라티왓 주〉, 〈쁘라쭈압키리칸 주〉가 있음.

○ 각 주는 주지사에 의해 통치가 되며, 주지사는 내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 방콕은 선거로 선출.

○ 태국어로 주(province)는 "짱왓"이라고 부르며, "짱왓"은 다시 877개 《암프》(amphoet)로 나뉨. 방콕의 50개의 구는 《켓》(khet)이라고 하며, 공식 문서에서도《암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 각 주마다 암프의 숫자는 다양 하며, 가장 작은 곳은 3개에서 가장 많은 방콕은 50개에 이를 때도 있음.

- 암프는 다시 《땀본》(tambon)이라는 세부 행정 단위로 쪼개지며, 가장 작은 마을의 개념인 《무반》(muban)이 있음. 방콕에서는 땀본을《쾡》(khwaeng)이라고 함.

6 주요 산업

○ 경제개발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음.

○ 관광산업은 2012년 기준 GDP의 13.8% 정도를 차지하고 약 506억달러의 관광수입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 부분이 전체 수입의 62.6%를 차지함.

Ⅲ 세계(문화·자연)유산 보존관리의 필요성

1 세계유산이란 ?

○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임.

○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세계유산지역은 세계의 문화와 자연 유산에 크게 기여하는 각 유산의 중요성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며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자산임.

○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

○ 2015년 현재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91개국이며 세계유산은 전 세계 163개국에 분포되어 있고, 현재까지 1031곳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문화유산이 802곳, 자연유산 197곳, 복합유산이 32곳임.

2 세계유산의 분류

○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함.

○ **문화유산**

- 기념물 : 기념물, 건축물, 기념조각 및 회화, 고고유물 및 구조물,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건조물군 :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유적지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자연유산

-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 복합유산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3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 1995년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 1997년 창덕궁, 수원화성

○ 2000년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지

○ 2007년 제주 용암동굴과 화산점

○ 2009년 조선왕릉

○ 2010년 하회마을

○ 2014년 남한산성

○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 익산시 지역의 왕궁리 유적(王宮里遺蹟), 미륵사지(彌勒寺址) 등으로, 이들 유적은 475년~660년 사이의 백제 왕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음. 백제역사유적은 중국의 도시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 종교를 수용하여 백제화(百濟化)한 증거를 보여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룩한 세련된 백제의 문화를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음.

- 우리지역은 2006년부터 10여년의 노력 끝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우리나라 백제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 앞으로 하나의 관광지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백제문화의 고향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함. 이곳에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체득하고 익산에 있는 다른 문화유산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Ⅳ 태국의 세계문화유산

1 태국의 문화유산 보존정책

○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도

- 태국 역사에서 중요시되는 고도는 수코타이, 아유타야, 돈부리, 방콕 총 4곳으로 이중 **수코타이와 아유타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어 있음.
- 수코타이와 아유타야의 관리는 태국 예술청의 매우 중요한 업무임.

○ 세계유산 이외 고도

-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돈부리와 방콕은 해당 지방정부 주도로 **'고대도시 특별관리법'을 제정하고자 위원회를 운영 중**임. 특별법 에서는 두 곳 모두 도시 전체가 아닌 중요 지구만 지정해 적용하고, 예술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임.
- 4개 고도 이외 **치앙마이 등 중요 역사도시도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임.

○ 고도 관리에 대한 각 기관별 역할

- 아유타야와 수코타이의 세계유산 등재 유적은 역사공원(Historical Park)으로 지정해 **아유타야는 예술청 직할**로, **수코타이는 예술청 직속 기구(Sukhothai Historical Park Office)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음. 역사공원 외의 **고도보존 정책은 각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세계유산 이외 고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부족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임. 하지만 중앙과 지방간 갈등요소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도관련 민간 기구는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음.

○ **관리의 애로사항**

- 세계유산 등재와 이에 따른 관리는 **주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음.** 특히 이사와 건축 규제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갈등이 커지기도 했음. 다만 **아유타야의 경우 이주단지 조성에 많은 혜택을 주며 갈등이 거의 없었음.**

2 수 코 타 이

√ 수코타이
ㅇ 태국 북서부에 위치한 수코타이 왕조(1257~1350)의 수도
ㅇ 약 2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ㅇ 시암문명(현 태국문명)의 발생지로 유명하며,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 수코타이는 13세기와 14세기에 시암(Siam) 첫 번째 왕국의 수도로 이곳에는 타이의 초기 건축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많은 멋진 기념물이 남아 있음. 수코타이 왕국에서 발전된 거대한 문명은 여러 지역의 영향과 타이의 고대 전통을 흡수·동화되면서 '수코타이 양식'으로 발전함.

○ 유네스코 등재 유적지는 '수코타이 역사공원'으로 지정해, 태국 예술청의 지방사무소인 **'수코타이 역사공원 관리사무소(Sukhothai Historical Park Office, 이하 관리사무소)'가 관리**함.

○ **관리사무소**는 역사 유적 뿐 아니라 천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내 건축 관련 업무와 외곽수로까지 관리**하고 있음. 다만 거주민의 **수도·전기시설 등 경상적인 시설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역사공원 관리 지방법'에 의거하여 관리**함.

○ 아유타야와 마찬가지로 중요 유적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이주시킨 이주단지를 조성해, 유적지를 보호하고 있음. 이외 고도 보존과 관련된 정책은 아유타야와 모두 같음.

3 아 유 타 야

√ **아유타야**

ㅇ 태국 중부에 위치한 아유타야 왕조(1350~1767)의 두 번째 수도

ㅇ 총 면적 2,556㎢로 약 8만명의 인구가 거주함

ㅇ 199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방파인(여름궁전)으로 대표되는 왕실관련 유적(왕궁), 수많은 사원 유적이 있음

○ **아유타야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역사공원으로 지정· 관리.

○ 역사공원은 주민 거주지, 비거주지, 농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유산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역사공원 내 원주민 이주**

- **(이주 현황)** 30여 년 전 **유적지 보호를 위해** 일부 중요유적지 내 거주 주민들을 **아유타야 밖에 조성한 이주 단지로 옮김.**
- **(지원 사항) 토지 무상 지급, 이주비(집값의 20% 정도) 지원, 도로 및 편의시설 지원, 수도 및 전기 시설.**
- **(건축 규제) 2층 이하, 기존 건축 형태 유지하는 건축만 가능**, 설계 후 예술청의 승인을 받아야 공사 가능함.

○ **역사공원 내 시설물 관리**

- 역사공원 내 주민 거주 가옥은 보수·수리에 초점을 맞춰 관리,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역사유적은 단지 **무너지지 않게 최소한의 수리나 방재(개미 등) 조치만** 하고 있음.

- 역사공원 내 시설물 보수·수리 관리 체계를 위한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예술청이 관리기준을 정해 추진**하고 있음

- 역사공원 내 중요유적지 인접지역은 2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함. 다만 중요 유적지가 아닌 경우에는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한해 높이와 형태 규제가 없음.

- 시설물 보수수리 및 관리는 **정부기관과 민간의 협력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예술청 소속 역사유적 관리 담당이 현지 조사 및 확인 후, 민간 설계자 및 디자이너가 보수·수리 설계도를 작성, 최종적으로 예술청장의 결재 및 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 **역사공원 주변 관리**

- 유적과의 이격 거리에 따라 3개의 구역을 설정한 후 **가까운 곳으로부터 9m, 12m, 15m 이하의 건축 가능**함.

- 역사유적 **주변 관광단지는 상업 시설 영업을 위해 지원, 3~4㎞ 외곽지는 호텔 건립도 가능**함.

Ⅴ 주요 방문지역별 견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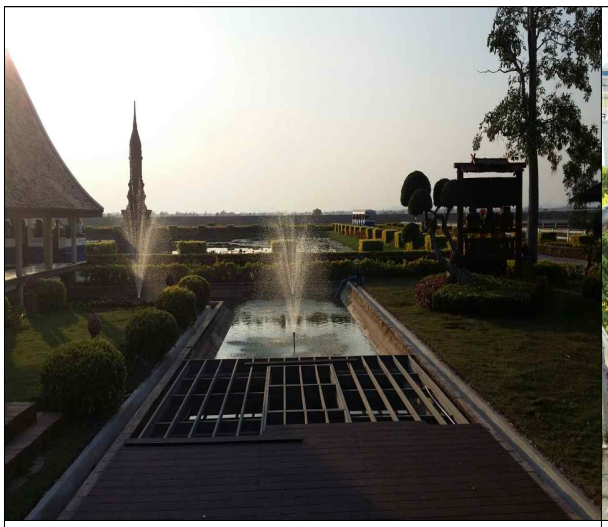
1 수코타이 공항

○ 방콕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수코타이 공항은 공항이라기 보다는 잘 가꿔놓은 정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줌.

- 공항이라고 하면 관광객으로 붐비거나 자동화된 물류시스템을 생각하기 쉬우나 소형 항공기 한 대에서 내린 70여명의 관광객과 수동으로 승객들의 짐을 날라다 주는 광경에 다소 놀라웠음.

- 공항 외관은 해당 지역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었으며, 항공기에서 공항역사까지 이동경로에 다양한 꽃들을 심어 놓아 마치 시골길을 달리는 기분이 들었음.

○ 우리지역 공항 건설시에도 대규모 시설설치도 좋지만 우리 지역 전통과 문화가 잘 녹아들어가 있는 조경과 시설물 설치를 고려해 볼 만 함.



수코타이 공항 정원



승객들의 짐을 직접 날라다 주는 광경

2 씨 싸차날라이 역사공원 (수코타이)

○ 씨 싸차날라이 역사공원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코타이 중심지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왕조의 문화유산답게 웅장한 크기, 정밀함과 세밀함이 함께 공존하며, 무엇보다 주변의 나무들과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이었음.

○ 여러 개의 불상과 정중앙의 불상 그리고 높이 솟은 사원의 모습에 한껏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음.

○ 역사공원을 대표하는 사원으로 당대의 건축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왓 창 롬(Wat chang Lom)은 스리랑카 양식의 거대한 종모양의 기단부에 새겨진 코끼리 조각 때문에 '코끼리에 둘러싸인 사원'으로 불림



씨 싸차날라이 역사공원 지도



왓 창 롬(Wat chang Lom)

○ 전쟁과 역사의 시간으로 인해 유적지가 많이 파괴되고 손상되었지만 수코타이 왕조 때의 화려했던 역사와 그들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음.

○ 아쉬운 점은 유적지마다 한국어로 된 안내판도 없으며, 영어로 된 안내판이 있긴 하나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있어 가이드 설명 없이는 유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3 수코타이 역사공원 (수코타이)

○ 수코타이 역사공원의 유적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수코타이 공원의 성벽 내에 위치한 유적들을 묶어 중앙 유적군이라고 부름.

○ 수코타이 유적의 최고볼거리인 '왓 마하탓(Wat Mahathat)'을 비롯하여 '왓 씨싸와이 (Wat Sri Sawai)', '왓 싸 씨 (Wat Sa Sri)', '왓 트라팡 응언 (Wat Traphang Ngoen)' 등 주요 사원들이 포함되어 있음.

○ 수코타이 왕조가 아유타야 왕조에 흡수되기 전까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돌로 만들어진 건물과 웅장했던 옛터를 보면 수코타이 왕조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알 수 있었음.



수코타이 역사공원 유적지에서



왓 마하탓(Wat Mahathat)

○ 수코타이 역사공원에는 유럽관광객이 많은 반면 아유타야 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다고 함. 그래서 그런지 안내판에 불어로 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음.

○ 수코타이 역사공원은 유적지가 크고 넓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숙소나 여행사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대여하고 있으며, 입구에 “툭툭이”라는 오토바이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공원 내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음.

	
공원내 이동수단인 “툭툭이”	왓 씨 싸와이 (Wat Sri Sawai)

○ 이곳의 사원들은 모두 동쪽을 향하고 있는 반면 왓 씨싸와이는 특이하게 남쪽을 향하고 있음.

- 왓 씨 싸와이는 원래 시바신을 모신 힌두교 사원이었으나 수코타이 왕국 시절에 불교사원으로 개조되었으며 가운데 탑을 비롯한 3개의 탑으로 이루워져 있음.

4 람캄행 국립박물관 (수코타이)

○ 람캄행은 태국문자를 만든 왕으로 수코타이 8번째 왕으로 태국의 위대한 대왕 3명 중 1명으로 꼽히는 인물임. 동상을 보면 그가 문자를 발명한 것을 기리 듯 오른 손에 책을 들고 있음.

○ 수코타이 역사공원 성벽을 지나 매표소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위치해 있는 람캄행 국립박물관은 수코타이 시대의 불상과 크메르 조각상, 석고 재질의 조각상, 도자기, 람캄행 왕의 비문 복사본 등이 전시되어 있었음.

○ 람캄행 국립박물관은 수코타이 왕국 전역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1층에는 불상들이 2층에는 생활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생각보다 규모는 작은 편이었음.

○ 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불상은 걸어가는 불상으로 14세기 청동으로 만든 불상으로 공원 내에서 발굴되었다고 함. 태국의 불상은 대체로 근엄하기 보다는 정겨운 느낌을 주는 데 이 불상은 특히 정겨운 느낌이 더욱 강함.



람캄행 국립박물관 입구



왓 창롬 코끼리 동상 복원

5 왓 야이 차이 몽콘 (아유타야)

○ 왓 야이 차이 몽콘(Wat Yai Chai Mongkhon)은 태국 승려들의 명상을 위해 지어진 곳으로 아유타야에서도 다소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사원의 중앙에 있는 72m 높이의 탑은 미얀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반대편에 지어진 미얀마의 탑보다 높게 지어서 미얀마를 능가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함.

○ 사원 앞은 여러 양식의 많은 탑들이 있었으며, 탑 주변으로 정원이 깔금하게 정리되어 있었음.

○ 사원내에는 다양한 크기의 불상들이 중앙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데 지역주민에게 기증받은 불상들이라고 하며, 다른 유적지와 다르게 머리가 온전히 보전되어 있었음.

○ 왓 야이 차이 몽콘의 중심인 72m 높이의 사원은 어마어마한 높이와 경사가 눈길을 끌었는데 계단을 올라 탑 내부에 올라보면 금박을 붙인 불상들이 여러 개 있었음.



72m 높이의 사원 입구



사원주변의 불상들

6 왓 프라 씨 싼펫 (아유타야)

○ 왓 프라 씨 싼펫(Wat Phra Si Samphet)은 아유타야 왕궁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유타야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다고 함.

○ 왓 프라 씨 싼펫이 있는 왕국은 아유타야 첫 번째 왕부터 100년 가량 왕실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다가 1448년 새로운 왕의 거주공간을 만들면서 승려가 살지 않는 왕실사원의 역할을 하게 됨.

○ 왓 프라 마하탓, 왓 랏차 부라나, 왓 프라 씨 싼펫 아유타야 역사공원의 주요한 유적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매일 19:00부터 21:00까지 운영함.

- 주변을 거닐면서 감상할 수 있는 조명을 받은 유적지의 모습이 낮에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인상을 주어 야간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방콕에 머물며 아유타야를 들렀다 가는 1일관광의 비중이 높은데 야간 관광을 위한 매력물을 제공함으로써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 시사점이 큼.



왓 프라 씨 싼펫(Wat Phra Si Samphet)



왓 프라 씨 싼펫 야간조명

7 짜오쌈 프라야 국립박물관 (아유타야)

○ 아유타야 왕조가 남긴 예술품을 비롯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생활용품 및 불교관련 용품을 주로 전시하고 있었음.

○ 아유타야 왕조가 세워지기 이전인 6, 7세기에 만들어진 불상도 일부 보관하고 있으며 당시 건축물의 합각부 부재, 출입문과 다양한 건축 조각상도 전시되어 아유타야 시대의 건축양식과 조형미를 알 수 있음.

○ 또한 아유타야의 여러 사원 불탑 양식과 도면자료를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아 구조와 양식을 파악하기 용이 하였음.

○ 특히 라메수안(Ramesuan) 왕이 1384년에 지었던 사원 왓 프라 마하탓(Wat Phra Mahathat)에서 발굴된 금불상 및 크리스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음.



박물관 입구



전시된 금불상

○ 태국의 사원에는 손톱에 금박을 한 불상을 쉽게 볼수 있는 데 태국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금박을 부처님 몸에다 붙인다고 함. 센스있게 부처님의 손톱에 붙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8 왕립 민속예술 공예센터 (아유타야)

○ 아유타야와 타지역 출신들의 농부들이 민속품과 공예품을 만들고 교육을 받기 위한 센터로 방사이(Bang Sai)에 위치하고 있음.

○ 이 센터는 1976년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제작품들은 이곳과 체인점에 판매된다고 함.

○ 제작품으로는 양치식물 줄기로 엮은 바구니, 조화, 나염, 실크, 목공예품, 손으로 만든 민속인형, 가구 및 피복 제품들임.

○ 공예센터에서도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데 모든 판매수입금은 지역 농민에게 환원된다고 함.

○ 태국의 전통예술과 공예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음.



왕립민속예술 공예센터에서



공예센터 내부

9 방파인 별궁 (아유타야)

○ 방파인 별궁은 국왕의 별장으로 사용되던 건축물로서 미얀마의 침공에 의해 아유타야가 점령된 후 수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다가 보수되어 라마 4세와 5세 시절 복원된 형태이며, 현재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음.

○ 별궁에서 이태리와 그리스를 거쳐 멀리는 빅토리아식에서 고대 중국의 건축 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양식을 한 공간 안에서 볼 수 있음.

○ 태국의 궁과 사원은 신성한 곳으로 입장시 복장을 체크하는 데 슬리퍼, 민소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스커트, 반바지는 입장이 안 되며 입구에서 커다란 천 같은 것을 대여함.

○ 태국양식의 금빛사원과 유럽양식의 조형물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다소 오묘한 느낌을 줌.



금빛사원



출입시 복장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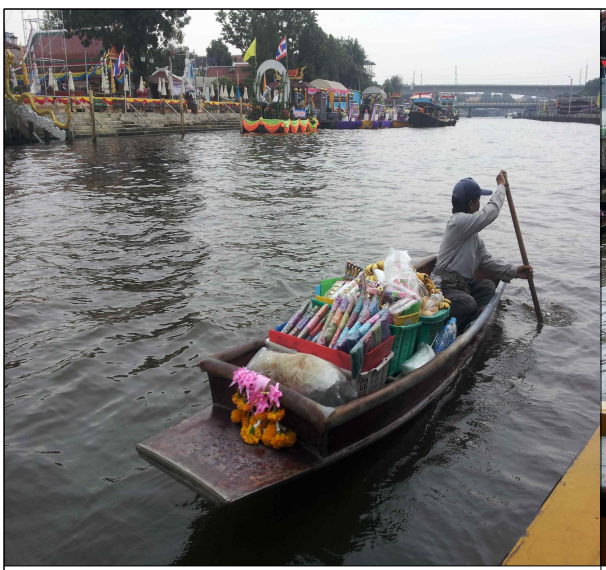
10 담넝사 두억 수상시장 (방콕)

○ 방콕에서 서남쪽 칸차나부리로 가는 길로 방콕에서 부터 약 55Km 떨어진 지역으로 차로 약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 오래 전부터 태국인들이 이용 해 왔던 전통 수상시장으로 오전8시 정도면 파장을 하지만 외국 관광객을 위하여 오후까지 연다고 함.

○ 사공이 노를 젓는 조그만 쪽배를 타고 수상시장을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과 함께, 배 위에서는 먹거리부터 장식 소품, 전통 공예품, 도자기, 악세사리까지 매우 다양한 상품을 전시하면서 판매하고 있었음.

○ 운하가 발달한 나라이다 보니 더불어 수상시장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태국인의 서민적인 풍경을 고스란히 엿볼 수가 있었음. 다만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보니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친 듯 하여 다소 아쉬었음.



수상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우리나라 예비군 모자를 쓴 상인

11 위험한 기차길 시장 (방콕)

○ 메끌렁 시장은 기차길과 함께 연결된 시장으로 유명하지만, 기차길 뒷편으로도 넓게 시장이 퍼져 있는 꽤 큰 규모의 현지인 시장임.

○ 외국 관광객이라고는 기차를 보러오는 사람들뿐이고, 대부분이 현지인들이다보니 물가도 굉장히 저렴하였고 과일 같은 경우는 정찰로 판매하고 있어서 어렵게 흥정해야 할 필요도 없었음.

○ 상인들도 많지만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섞여 있어서 앞으로 지나기조차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음.

○ 이름 모를 예쁜 꽃부터 해산물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물건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함.

○ 기차가 다니는 기차길에 어떻게 좌판을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상당히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음. 그것은 진열대 아래 바퀴를 설치해 기차가 들어오면 쉽게 매장 안으로 당겼다가 기차가 지나가면 밖으로 미는 방법이었음.



시장 전경



진열대 아래 바퀴 설치

12 카오산 로드 (방콕)

○ 카오산 로드(kaosan Load)의 매력은 '무국적 공간'이라는 데 있으며 전 세계 배낭여행객들의 집합소로서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베이스캠프로 자리 잡음.

○ 현지 여행사, 기념품 가게, 인터넷 카페, 기념품 가게,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쇼핑, 바, 펍, 클럽 등 여행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배낭여행객들의 천국, 성지라 불림.

○ 2001년 고급 숙소인 '버디 로지'를 시작으로 하여 스타벅스를 비롯한 고급 식당과 인터넷 카페 등이 생겨나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놀 줄 아는 태국 젊은이들이 카오산 로드를 방문하기 시작함. 배낭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카오산 로드 고유의 분위기가 희석되고 있다는 평임.

○ 배낭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관광 매력물로 정착.

- 카오산 로드는 박스형 매트리스 형식의 값싼 게스트하우스에서부터 3성급 호텔에 이르는 숙박업소까지 값싼 숙소가 많음.
-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함.



카오산 로드 (kaosan Load)



카오산 로드 지도

13 위만멕 및 아난다사마콤 왕궁 (방콕)

○ 위만멕 왕궁(Vimanmek Palace)은 태국 최초로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라마 5세가 만든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압정으로 지어 건축적인 완성도를 높이 평가 받음.

○ 1982년 현재 국왕인 라마 9세의 부인인 씨리낏 왕비의 후원 아래 박물관으로 재탄생 하였는데 국왕집무실, 침실, 욕실, 응접실은 물론 라마 5세의 개인 소장품 등으로 꾸며놓음.

○ 아난다사마콤(Ananta Samakom) 궁전은 동양의 베르사유 궁전이라 불릴만큼 아름다운 궁전으로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로써 라마 5세의 영빈관 역할을 했다고 함. 내부는 순금과 풍뎅이 껍질로 만들어진 각종 전시품과 조각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음.

○ 궁전 내부는 한국인 가이드가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현지인 가이드를 동행해야 하며, 다른 왕궁과 마찬가지로 복장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 여자들은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입장이 가능하며 다른 곳과 다르게 대여하지 않고 구입만 가능함. 왕궁 내부는 소지품 소지와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으며, 내부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함.



위만멕 궁전(Vimanmek Palace)



아난다사마콤(Ananta Samakom)

Ⅵ 시사점 및 도정 접목 방안

1 세계문화유산 관련 시사점

1 거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필요

○ 태국 아유타야, 수코타이는 모두 초기 유적 관리를 위해 중요 유적지 인근 거주민들을 이주하는 정책을 펼침. 특히, 아유타야와 수코타이 거주민 이주촌은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함.

○ 하지만 기본적인 정책은 원주민의 거주를 허용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한 상업 활동 허용, 원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물 건축 허용 등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고도는 유적지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 핵심유적에 대한 유적 복원·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매입 철거 위주의 정책에서 거주민과 유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고도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의 개발 및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② 법 령 정 비

○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의 중복규제를 피하면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검토되어야 함.

○ 특별법은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유산 주변의 활용'을 통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안을 찾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호주는 세계 최초로 1983년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법은 1990년대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법으로 대체됨.

- 이 법은 세계 유산뿐 아니라 국내 유산의 예방적 또는 사후 처방적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로 작용.

- 세계유산 지역에서 행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하고 세계유산 지역내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시급

-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문화재보호법에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호에 관한 일부조항을 두고 있지만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문화유산의 신청과 등재, 보존관리, 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관리기구의 전문성 강화

○ 세계유산정책의 수립과 집행, 세계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세계유산관광과 홍보,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의 교육 및 보호활동 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계유산정책본부 형태의 기구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관리기구는 해당 자치단체의 문화재담당과에서 총괄하는 형태,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는 형태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세계유산 관리조직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유지·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에게 안내와 교육 등의 업무등이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4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

○ 문화유산 영역은 보존과 활용의 문제 등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으로 특히 세계문화유산의 등재와 유지에 있어서도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프로세스가 따라야 함.

○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카데미 설치운영과 대학에서도 문화재활용학과, 세계유산학과 같은 특화된 학과를 개설하여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해설사 전문 직업제 도입으로 세계문화유산안내, 해설의 전문성, 흥미성을 구축해야 함.

⑤ 보존과 개발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그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 유명관광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문화정책의 유구한 전통과 잘 다듬어진 행정관리 체계의 지원 하에 지역특성을 전략으로 삼아 적절한 보존과 개발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연중 관광 형태를 지향하고 있음.

○ 태국 수코타이와 아유타야의 경우도 도시지역 자체가 유산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 등이 관광자원화 및 지역 활성화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문화유산은 삶의 연장선 속에서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화로 이어져야 할 것임.

⑥ 국제적 협력과 교류 강화

○ 세계문화유산은 전 인류에게 소중한 자산이며,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고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협력과 국제적인 원조가 필요함.

○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국제적 학술교류와 민간교류가 필요하며, 폭넓은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 해야 함.

2 태국 왕궁의 시사점

○ 태국 방콕의 핵심 관광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왕궁은 관람객의 복장 검열 등을 통해 고유의 문화와 자존심을 지키는 관광 매력물로 우리나라 5대궁의 관광자원화의 추진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함.

○ 우리나라도 5대궁을 관광 명품으로 활용하고 관광 상품으로 활용과 문화자원으로 보존 측면에서 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관광객의 메카 카오산 로드의 시사점

○ 여행 및 관광형태가 대중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중심의 backpacker의 국가 간 이동의 확대로 여행비용을 절약하려는 여행객의 증대로 저렴한 게스트 하우스와 저렴한 숙박시설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음.

○ 방콕의 카오산로드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와 음식 가격으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장소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 도의 경우도 개별 여행객의 형태를 반영하고, 저렴하고 경제적인 숙박시설과 음식제공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되는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가 요구됨.

○ 이와 더불어 카오산 로드에서 문제되고 있는 여행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적절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4 문화유적지 입장료 차별정책의 시사점

○ 태국의 문화유적지 입장료는 자국민과 외국인의 입장료가 차이가 5배 정도 차이가 남.

○ 대체로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문화유적지 입장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에게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장료가 동일한 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저렴하게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가 태국의 문화유적지 방문시 냈던 입장료가 비싸지 않다라고 느낀 것은 그 나라의 문화유적을 직접 보고 느낀다는 데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의미였음.

- 이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문화유적 관계자와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씨 싸차날라이 역사공원 입장료
(내국인 20바트, 외국인 100바트)



경기전 입장료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함)

5 태국 관광정책의 시사점

○ 태국은 관광정책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이한 점이 있는 데 관광회사 인·허가 시에는 반드시 관광청에서 파견한 자국민을 고용해야 하고, 관광일정에 자국 내 상점방문을 의무화 했다는 것임.

○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으며 이는 내국인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외국인 가이드에 의한 자국의 역사, 문화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에게 태국문화의 우수성을 올바로 알리고 체험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 도에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률 증가 및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광정책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6 기타 시사점

○ 태국의 신호등에는 빨간불과 파란불이 교차되면서 남은 시간을 표시해 주는 데 성격 급한 우리나라에 적용시 유용할 듯 함.



빨간불 신호시



파란불 신호시

Ⅶ 연 수 후 기

○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하지만 중대형 상가나 시내 곳곳의 입구에는 간판보다 더 큰 대형 국왕의 사진이 걸려있어 전 근대적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게 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 영국 등의 열강의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아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동되고 있었음.

○ 이처럼, 태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많은 문화재를 단지 문화유산만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관광 자원화 하여 볼거리로 제공해 수 많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수입이 국가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관광국가로 거듭 날 수 있었음.

○ 태국의 자연환경은 연중 무덥고 식수가 부족해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정부의 다양한 관광 정책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보면서 산·들·바다·광활한 새만금이 있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한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 돋움 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낌.

○ 금번 국외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앞으로 우리 자신의 발전은 물론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다짐함.

결 재 참 고

❑ 내 용 :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결과보고

○ 기　　간 : 2015. 12. 19(토) ∽ 12. 24(목) / 4박 6일

○ 방 문 국 : 태국(수코타이, 아유타야, 방콕)

○ 인　　원 : 9명(총무담당관실 4명, 운영수석전문위원실 3명, 의사담당관실 2명)

○ 연수결과 및 도정 접목 방안

① **세계 문화유산 관련**

- 세계 문화유산 지역 **거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필요
- 세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검토**
- 세계 문화유산 **관리기구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
- **보존과 개발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화**
-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국제적 학술교류와 민간교류**를 통해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

② 카오산 로드의 경우처럼 **개별 여행객의 형태를 반영**하고, 저렴하고 **경제적인 숙박시설과 음식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과 민간협력체계 확립**

③ **문화유적지 입장료**와 관련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정책 검토**

④ 관광회사 인·허가시 자국민 고용, **현지 가이드 의무고용, 현지상점 이용 의무화 등 태국의 주요 관광정책 도입 검토**

⑤ 주요 문화유적지에 **야간조명시설 설치를 통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⑥ 기타 **신호등 변경시 남은 시간 표시를 통한 사고예방 방안** 등